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국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광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구체화해가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3대 벨리와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진입한데 이어 인공지능산업도 광주의 미래를 떠받칠 또 다른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726억원 투입  
빛그린산단→자동차전용산단으로

**에너지벨리**  
2020년까지 250개 관련기업 유치  
효성·LS산전 등 굴지 대기업 투자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 창업단지 1조원 투입  
국립AI연구원·캠퍼스 등 설립

**광주형일자리**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으로 탄력  
사회 공감대 통한 사업·업체 발굴

# 광주 발전 4대축, 4차 산업혁명시대 이끈다

■ **친환경자동차산업-올해 1291억 투입**  
친환경자동차산업은 올해부터 집중적인 투자로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올해 자동차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3개 사업에 국비 531억원, 시비 544억원 등 총 1191억원. 2017년 827억원에 비해 약 1.5배가 늘어난 것이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726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18개 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45종의 기업 공용장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

빛그린국가산단을 자동차 전용산단으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절차도 지난해 11월 국토부에서 승인됐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제에 포함된 미래형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사업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와 연계한 커넥티드 서비스카산업 육성을 위한 고신뢰성 전장부품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위치한 전장부품 전문기업을 뒷받침할 링크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지역주도형 부품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다이다 융합산업 상용화기술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돼 3억원의 국비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친환경자동차안전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된 점 등을 계기로 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동차안전연구원 광주분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 **에너지벨리 국가·지방산단 속도 조정**  
또 다른 축은 에너지신산업으로, 광주·전남 일대에 에너지벨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대응, 수요관리 등 주요 현안에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신사업 분야다. 제로에너지빌딩, ESS통합서비스, 프로슈머, 태양광대여, 수요관리사업 등이 각광받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250개 유치, 고용창출 5000명, 매출 2조원, 1등 기술 확보 20개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들 관련기관과 기업을 담아야 위한 남구 대촌동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산단은 48만5000㎡(15만평)규모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이 곳에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LS산전 등 에너지관련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입주한다.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은 지난해 건립에 들어갔다. 광주분원은 광주시의 핵심 산업인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변환 시스템 기반 구축과 전력변환 및 스마트 배전 핵심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지원을 중점 담당하게 된다.

광주분원은 사업비 320억원이 투입돼 3만평 규모로 들어서며 2018년 말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전력변환연구시험 업무를 위한 연구동과 실험동, ESS시험동, 태양광성능시험동이 들어오고, 이후 사업비 확보를 통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실험동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부지 등 전기연구원의 차세대 연구시험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에너지벨리 핵심 기지로 기능할 에너지벨리 지방산단도 지난해 12월 21일 첫 삽을 떴다.

에너지벨리 지방산단단지에는 남구 대촌동 일원에 3000억원을 들여 94만4000㎡(29만평) 규모로 오는 2021년까지 조성된다.

에너지 관련 제조업분야가 주로 입주할 예정인 지방산단은 국내외의 50여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제출했고 170여개 업체가 MOU를 체결한 상태다.

더불어 '에너지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 기반산업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에너지벨리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도 활발하다. 광주·전남·한전이 50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고 시 독자적으로 14개 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총 64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효성과 LS산전 등 국내 굴지의 에너지관련 기업들과 함께 기술력을 확보한 우수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  
4차 산업혁명시대 주력 분야인 인공지능산업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전 기획비 명목으로 2018년도 국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기획한 사업으로, 제19대 대선 공약과제로 채택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어 국비까지 반영됨에 따라 광주시는 국가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1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10년간 ▲국립 AI연구원 설립 ▲AI 캠퍼스 조성 ▲AI 창업생태계 조성 등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립 AI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로 기존 대학이나 출연기관과 차별화된 대형 융합연구기관으로 설립된다. 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기업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AI 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I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으로 운영된다.

AI 창업생태계는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도시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AI 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 글로벌 AI 인재 5000명 배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 주요산업 및 인프라와 연계, 광주를 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한 전국적 위상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광주형 일자리-적용 모델 발굴·유치에 총력**  
광주는 미래형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정착을 추진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등 국가적 의제가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가 연대를 통해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면 애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이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도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노·사·민·정도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한 22명의 노·사·민·정 각 분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22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4대 원칙인 ▲적정임금(연대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허청관계 개혁 ▲노사책임경영 구현 등에 합의했다.

올해 시무시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노조간부 100여명이 함께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정착을 다짐하기도 했다.

시는 노·사·민·정의 공감대를 토대로 이를 실제로 적용시킬 사업과 업체를 발굴·유치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 '시무석' 자리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양대노총 단위사업장 노조 간부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정착' 퍼포먼스를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해 4월 25일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과 관련, 전용산단으로 조성 중인 빛그린산단 1-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2월 21일 남구 대촌동에서 '광주에너지벨리 지방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